M 의료 라운지 Medical lounge

광주 서정치과 '덴탈CT' 도입

〈치과전용 컴퓨터단층촬영〉

광주·전남지역 개인 치과병원 최초

한번 촬영으로 임플란트·교정진단

'진단'에 대한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이제 진단은 2차원에서 3차원으로, 또 단층 촬영 등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최첨단 제품은 CT(전산화 단층 촬영).

서정치과(원장 김재곤)가 광주의 개인병원으로는 최초로 '덴탈CT'(치과전용 컴퓨터단층촬영장치)를 도입했다.〈사진〉 이에따라 앞으로 인공치아 이식(임플란트) 등 치과진료에서 보다 정밀한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정치과에서 도입한 바텍사의 CT는 국산기술로 제작돼 한글 음성안내 기능과 환자의 앉은 키 체크 기능 등을 갖췄다.

선명도와 화면 구성에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한 번 촬영으로 임플란트와 교정 진단까지 가능하다. 또 X-Ray 피폭량을 최소화해 환자의 안전성을 도모한 것이 특징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조선대 치대병원에서 치과용 CT를 갖췄다.

서정치과 김재곤 원장은 "임프란트 진료에서는 이를 심는 부위와 길이를 정확히 계측하고, 아래턱 신경관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치료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였는데 치과용 CT의 도입으로 치료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치과용 CT는 0.1mm까지 정교한 두께의 단층 촬영이 가능해 영상의 단면도는 물론 3차원 영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파악할 수 있다.

어린이의 경우, 매복치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깊이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으며 턱 관절의 골절에서도 X-선 등 기존 기기들보다 우수한 기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덴탈CT 도입 이전에는 X-선과 다기능영상촬영 등이 주로 이용됐었다.

병원 관계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X-선, 다기능영상촬영장비 등은 두께 34mm 단층면까지만 촬영 가능했으나, 덴탈 CT는 0.1mm 간격의 입체화면을 제공해 기존 장치 대비 3천배 이상의 정밀성을 보인다"며 "촬영기록이 디지털로 영구히 보존되기 때문에 환자관리차원에서도 큰 효용성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

떠도는 갖가지 '건강 속설' 얼마나 맞을까

"어린이 TV 가까이 봐도 시력 안 떨어져"

술잔 돌리기·입맞춤으로 B형간염 전염 안돼

감기·변비약은 우유와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건강은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 관심사다.

'웰빙' 바람을 타고 몸에 좋다는 새로운 건강법이나 건강 상식을 듣고 푹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떠도는 건강 비법, 비과학적이며 검증되지 않은 자가치료법은 자칫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갖가지 속설, 얼마나 맞는 걸까?

전남대병원 전문의를 통해 진위를 알아본다.

▲어린이가 TV를 가까이서 보면 시력이 떨어진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조절능력이 뛰어나 가깝게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 때문에 습관적으로 책이나 TV를 가까이 보는 경향이 있을 뿐 특별히 시력악화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는 현재까지 없다. 하지만 일부는 근시 등의 굴절이상으로 잘 보이지 않아 TV를 가까이서 보는 경우도 있는 만큼 안과에서 시력을 확인해 보는 게 좋다.

감기엔 '고추가루 소주' 해롭다

▲소주에 고춧가루가 감기에 특효? =속설이다. 감기에는 특별히 나쁜 음식이 없다. 신선한 야채와 과일, 각종 비타민제도 좋다.

피할 게 있다면 음주와 흡연.

흡연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음주는 간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감기로 면역력이 약한 상태에서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

▲고양이를 삶아 먹고 벌침을 맞으면 관절이 좋아지나? =과학적 근거가 없다. 고양이가 유연한 동물인 탓에 유래됐지만 고양이의 기생충 감염 등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육류는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는 아라키돈산의 원료가 되며, 육류를 자주 섭취하게 되면 류머티스 관절염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류머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 환자라면 수육이나 장조림 같은 기름기가 없는 것이 좋다.

벌침도 약간의 소염 작용을 하지만 일시적일 뿐이며, 세균 감염으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감기는 약보다 주사가 낫다? =감기는 특별한 치료제가 없다. 약 대신 주사를 맞는다고 달라지진 않는다는 것. 의사가 주사제를 사용할 때는 먹는 약보다 흡수 가 빠르고 먹는 약이 개발되지 않은 경우다. 또 감기 치료를 위해 주사제를 쓰는 것도 소염진통제나 항생제를 사용할 때가 많다. 감기로 인한 두통이나 몸살 기운이 완화되기는 하겠지만 이정도 효과는 약으로도 얻을 수 있다.

▲설사가 있을 때는 먹지 않는 게 낫다? =장염 등으로 설사를 할 때 중요한 것은 탈수 증상을 막는 것. 병원에서 수액을 정맥으로 공급해주는 것도 탈수를 막는데 효과가 있지만 입으로 먹는 것도 중요하다. 장염 증상에도 수분과 전해질은 입으로 먹으면 흡수가 가능하다.

▲B형 간염 환자와 술잔을 돌리면 전염된다? =간염은 주로 혈액·정액·체액 등을 통해 전염된다. 술잔을 돌리거나 가벼운 입맞춤 등으로 접촉되지 않는다.

'관절에 고양이고기' 근거 없어

▲약을 우유에 먹으면 효과가 떨어진다? =약 먹을 땐 가려 먹어야 한다. 음식물과 섞이면서 상호 작용을 일으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항생제인 '테트라사이클린'은 우유와 함께 복용하면 체내 흡수율이 현저히 떨어져 효과를 보지 못한다. 이 성분이 들어있는 감기약·변비약·간질 치료제 등을 복용할 경우엔 우유 섭취를 삼가해야 한다. 반면 비타민 A·D·E·K 등 지용성 비타민제는 우유에 먹는 것이 좋다.

▲고혈압 약은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한다 =혈압약을 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약을 쓰지 않고도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약을 쓸 필요가 없다. 다만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을 경우 혈압이 올라가고 합병증도 빨리 찾아올 수 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도움말=전남대병원 유종선 소화기내과교수
이신석 류마티스 내과교수
임성철 호흡기내과 교수
정경희 약제부장
조선대병원 정중화 순환기내과 교수

초등1년 대상 '학교 적응 캠프'

22~23일 곡성 심청문화센터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적응을 위한 캠프'가 오는 22일, 23일 이틀간 곡성군 심청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전남대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건강 클리닉과 요한병원 소아청소년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아이들의 주의집중력과 사회성 향상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부모와의 대화'시간에는 '학교적응 어떻게 도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전남대병원 정신과 양수진 교수가 강의할 예정이다. 부모들의 케이스별 질문을 받는 시간도 준비됐다. 그밖에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을 문제해결 중심 심리극으로 풀어보는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참가접수는 선착순으로 아동과 부모 각 30명. 참가비는 가족 당 3만원이다. 출발은 22일 오전 10시30분 요한병원 정문.

문의 011-1773-9442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백의회 나이팅게일상 제정

첫 수상자에 김희선 간호사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간호사 모임인 '백의회'(회장 최영자 간호부장)의 제 34회 정기총회가 지난 6일 전남대 명학회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백의회는 근무경력이 10년 이상 된 전남대병원 간호사 중 진·선·미를 겸비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나이팅게일'상을 올해 처음 제정했다.

올해 첫 수상자로는 김희선 간호사〈사진〉가 선정됐다.